



신년기자감담회에서 올해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동국대 김희옥 총장

“불교인재 양성위한 인프라 확충 지속”

취임 2년차 앞둔 동국대 김희옥 총장

“건학이념의 구현과 함께 취임에 맞춰 선언한 ‘리스타트 프로젝트(RE-START PROJECT)’가 실현되면 동국대는 미래가치 선도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김희옥 동국대 총장이 2월 7일 교내 로터스홀에서 신년기자감담회를 열고 2012년 학교운영 계획을 밝혔다.

동국대는 올해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 ▷국고사업의 전략적 수주 ▷연구경쟁력 강화 ▷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 ▷제2건학기금 모금 확대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희옥 총장은 “지난해 불교학술원이 대형 국제사업인 불교기독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사업(ABC사업)을 수주해 동국대 건학이념이 구체적으로 실현됐다. 동국대가 세계적 수준의 불교학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교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학교의 크고 작은 성과가 최근 재정악화라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전기로 인상 등 모든 대학이 함께 겪고 있는 난관이지만 공통

분담을 위해 등록금 2.2%인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는 최근 올해 등록금을 2.2% 인하하고,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시켰다.

등록금 인하 결정에 따라 연간 인문·사회계열은 15만8000원, 이학·체육계열은 18만2000원, 공학·예능은 20만8000원, 약학계열은 25만6000원의 등록금이 인하됐다. 2008~2011년 4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5.2%인 점을 감안하면 동국대의 실질 등록금 인하율은 더 크다.

김희옥 총장은 “동국대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더불어 장학금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조계종립 대학의 수장으로 불자다운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등 공직생활 때보다도 더 엄격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자타의 평가이다.

김희옥 총장은 “불자·동문들이 우리 대학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공직생활 이상의 긴장감·열정·투명성을 갖고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소통에 중점을 두고 학교를 운영하

고통분담위해 등록금 2.2% 인하

공직생활 이상으로 총장직 임해

사회요구 부응하는 인재 양성

제2 건학기금 200억 모연 목표

고 있다. 최근 학부구조개편 등으로 총장실이 접거되고 기물 등이 파손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계도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희옥 총장은 “소통은 중지를 모으는 것이다. 대화·회의 때 자기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고 해서 소통이 안됐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올해 (가칭)인재동국 프로젝트를 통해 학부교육의 선도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재동국 프로젝트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학생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는 교과목 개편 및 장학프로그램 운영, 멘토링 강화, 인재동국포럼 개최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학생들의 취업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동국 프레쉬맨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다.

불교학술원의 ABC사업 같은 국고사업을 각 단과대·전공별로 전략적으로 수주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 승진 및 재임용시 국고사업 수주 실적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삼고, 신규교원에게 부교수급 이상 1억 원까지 연구정착금을 지급하고, 교내 최우수 연구업적 교원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키로 했다.

또, 바이오메디캠퍼스 조성사업을 비롯해 신공학관 준공, 해화문 일대·총무로관 개발 등 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연 중인 제2건학기금의 목표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기업대상 모금 등을 강화키로 했다. 동국대의 제2건학기금 모금액은 2010년 112억원이던 것이 2011년 182억원(임금액 기준)으로 160% 늘어났다.

김 총장은 “불자는 부처님과 같은 생각·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동국대는 이를 건학이념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교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성 기자 cetana@hyunbul.com

불교시민사회, 사업 노하우 ‘공유’

공모사업 결과 보고회

2012년 공모 2월 20일 시작

조계종 사회부(부장 혜경)가 ‘불교시민사회단체 공모사업 결과보고회’를 2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마련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 후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모사업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합천평화의집’은 원폭 피해 희생자 추모제 ‘해를 넘어 평화의 언덕으로’를 추진했다. 추모제는 70만 원폭 피해자 중 한국 출신 피폭자 7만 명의 희생을 기리는 행사다. 조계종의 지원으로 유족, 피해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처음으로 개최했다.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는 ‘2011 국제개발협력 주민운동교육 훈련 경과 보고’를 발표했다.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대상의 주민 중심 교육이 이번이 최초다. 이들은 5강에 걸쳐 주제교육과 현장방문 워크숍, 활동가 포럼, 비전 워크숍 등을 추진했다. 후속 활동으로는 활동가 네트워크, 협동조합 연구 등도 계획 중이다.

‘위드아시아’는 ‘평화통일염원 견기대회’를 지난 해 5월 부산 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열었다. 이 대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해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함께하는 세상’은 ‘한글공부 불교 네트워크 체험순례’를 진행했다. 몽골 스님들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에 참가한 뒤 조계사 봉은사 해인사 선본사 동화사 등을 방문했다. ‘사찰생태연구소’는 한글대장경을 토대로 10개월 간 연구한 ‘불교 경전에 나타난 식물 목록 기초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했다.

결과보고 후 간담회에서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응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중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수찬 함께하는세상 사무처장도 “인력이 인력을 세울 수 있는 인재양성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혜경 스님은 “앞으로 자주 만나서 의견을 나누면서 개선 방안을 고민하자”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사회부는 2012년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올해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예산 범위 내에서 2월 20일~3월 16일 사이에 접수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들은 조계종이 추진하는 5대 결사의 각 분야별 취지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남북불교의례 통합 추진된다

민추본, 이사회서 올해사업 확정

조별련과 구체적 방안 논의키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가 올해 남북불교의례통합과 불교통일교육 등을 추진한다.

민추본은 2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올해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민추본은 올해 주요 사업방향으로 ‘남북 불교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 경색 해소, ‘남북불교교류협력’을 통한 남북불교 공존과 상생, ‘불교계 통일 활동의 대중적 저변 확대’로 설정했다.

주요 사업은 크게 남북 불교 교류사업과 통일외교확산사업으로 분류된다.

남북불교 교류사업으로는 ▷남북불교의례통합 ▷봉축행사 조별련대표단 초청 ▷금강산 신계사 낙성 5주년기념 성지순례 및 남북불교도합동법회 ▷북북불교문화재 보존보수 등이 추진된다.

남북 불교의례 통합은 반야심경 한글화 남북 공동사용과 남측의 불교의례를 전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추본은 이를 위해 2월 조별련과 협의의 시작해 5월 봉축법요식에서 한글 반야심경 남북공동사용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박기범 기자

북북불교문화재 보존보수 사업에서는 금강산 신계사의 기와보수 작업과 내금강 서산대사비 보존보수 작업이 추진된다. 민추본과 조별련은 공동으로 3월 경 금강산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추후 일정을 조율해 사업을 시행한다.

통일외교 확산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불교통일교육 <불교와 통일> 특강 ▷통일 정도를 찾아서 떠나는 2012 평화기원성지순례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등이 추진된다.

찾아가는 불교통일교육은 <불교와 통일>교재를 활용해 연중 8회 가량 실시될 예정이다. 민추본은 불교통일교육강사진을 구성하고 수도권 중심의 사찰 불교대학에 특강을 제안할 방침이다.

통일정도를 찾아서 떠나는 2012 평화기원성지순례는 강화, 파주, 철원, 고성, 양구, 연천, 민통선 지역을 대상으로 연중 8회 실시된다.

남북불교교류 활성화 토론회는 연중 2회, 상·하반기에 실시될 계획이다.

민추본 관계자는 “올해는 남북불교교류 활성화를 통해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간절한 바람이 전해져 남북 간 대화가 하루 빨리 복원되고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감로수로 복 받으세요”

승려노후복지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조계종이 판매하고 있는 생수 ‘감로수’ 홍보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직접 나섰다. 스님은 2월 9일 김로수가 판매되고 있는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마트를 방문해 봉은사 신도 100여 명의 쇼핑카트에 직접 감로수를 넣어주며 구입을 권유했다. 자승 스님은 “오늘 방문을 계기로 신도들의 구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생수 판매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지만 승려노후복지제도 정착을 통해 중단 안정과 발전의 기틀이 되는 일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환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사회부(부장 혜경)가 올해부터 교계 밖 일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 한다. 조계종은 그동안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통해 불교시민사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공동선 예산을 통해 ‘시민단체 연대회의’ 워크숍을 지원한 것이 좋은 반응을 얻어 자체 예산 편성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중단 공동선 예산 중 1500만

조계종, 교계 밖 시민단체도 지원

원인 사회부 일반 시민사회단체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고, 공동선 예산도 작년 3800만원에서 올해 4800만원으로 증액됐다.

사회부는 이를 통해 일반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2월 9일 용산참사 대책위 방문시 자승 스님이 전달한 금일봉도 이 예산에서 지원됐으며 올해 지원이다. 박기범 기자

2012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International Buddhist Culture & Industry Exhibition 2012

일시_ 2012.03.15금 ~ 03.18일 3일간

장소_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 2전시장

주 최_ BBS광주불교방송, (주)엑스퍼트
후 원_ 세계불교도대회추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호남 6교구본사, 태고총림 선암사
참가문의_ 2011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사무국062_383_6322